

오피니언

테마칼럼

남도의 패밀리

도시와 삶

인생과 경영

한국인 속에서



김 세 곤

의(義)의 길을 걷자

길이 대세이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순천만 갈대숲길, 관동별곡 800리길 등은 온통 길이 유행이다.

길 중에서 2009년에 가장 히트한 길은 제주도 올레길이다. 15개 코스, 269km 해안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대표 길이 되었다. 제주도 올레길은 올레길 하나로 대박을 터뜨렸다. 제주 감귤의 상표도 올레이고 KT의 휴대폰 광고도 올레이다.

왜 이리 올레길이 인기일까. 이 길에는 치유가 있다. 천천히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평화를 얻고 있다. 이 길에는 이벤트가 있다. 연예인 고두심, 최불암이 관광객과 같이 걷고, 소설가 조정래, 김주영이 팬들과 함께 문화를 이야기하는 등 매월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매스컴도 한 끝을 하였다. KBS '다큐 3일'이 방영되는 신문과 방송에서 앞 다투어 홍보를 하여 사람들을 더 몰리고 있다.

이렇게 길이 돈을 벌어주니 지방자치단체마다 길을 만든다고 약단이다. 전북에 순례자의 길이 만들어졌고, 광주도 무등산 옛길에 이어 생태 길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돈 많이 들여서 길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남도 길을 걸어 보면 어떨까.

남도의 브랜드가 무엇인가? 의향(義鄉), 예향(禮鄉), 미향(味鄉)이다. 그렇다면 남도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의 길, 예의 길, 미의 길을 걸어보자.

우선에 의(義)의 길부터 걷자. 세상을 바르게 살려다가 화를 당한 조선 선비들의 이야기가 있는 길을 걸어 보자. 먼 곳까지 갈 것 없고, 광주에서 가까운 화순과 담양, 장성에 그런 길이 있다.

화순에는 1519년 기묘사화의 희생자 조광조와 양맹순, 그리고 최선우의 힘으로 서려 있는 길이 있다. 능주면의 적려유하지는 조광조가 귀양을 와서 사약을 마시고 죽은 곳이다. 죽수서원에는 조광조와 그의 시신을 수습한 양맹순의 신위가 같이 모셔져 있다. 학포당은 양맹순이 세상과 등지고 산 곳이고, 물엄정과 적벽, 그리고 도원 서원에는 최선우의 귀양살이 흔적이 남아 있다.

담양에는 소쇄원부터 시작하여 식영정, 송강정, 면양정까지의 의(義)의 길이 있다. 소쇄원에는 조광조의 제자 양산보가, 식영정에는 동생과 인연을 끊고 의리를 지킨 임여령이 있다.

송강정에서는 1545년 을사사화로 창평에서 살게 된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을, 면양정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한 송순을 만나게 된다.

장성에는 하서 김인후의 길이 있다. 황룡면 맥동 마을 입구의 봉바위에서부터 백화정, 난산, 하서 묘소, 필암서원 코스가 하서 길이다. 난산은 하서와 인종 임금과의 인연이 스며있는 곳이다. 하서는 매년 7월 1일 인종 기일에 난산에서 통곡하였다고 한다. 백화정에는 호남 유학자 이향과 기대승 그리고 김인후 간의 태극 논

쟁 이야기가 배어있다.

이외에도 남도에는 해남, 강진, 완도, 진도 등 곳곳에 의의 길이 있다. 이런 의의 길을 걸으면서 남도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끼자.

그런데 의의 길 걷기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재미있는 스토리와 자세한 안내가 그것이다. 며칠 전에 소쇄원에서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소쇄원이 별로 볼 것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인촌 장관이 좋은 곳이라고 방송에서 말하여 찾아 왔더니 집 두어 채와 데나무 숲밖에 없어, 다른 곳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에게 소쇄처사 양산보의 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제월당에 걸린 한시와 도연명의 귀거래사 글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더니 '아! 정말 그런 사연이 있네요.'하면서 자세히 물어본다.

역사 유적도 그냥 보면 다 집이요, 정자요, 비석이다. 그러나 그 안에 스며있는 사연과 스토리를 자세히 알면 잔재미가 쏠쏠하다.

이렇듯 올립이 있는 스토리와 길 안내 지도가 담긴 팜플릿을 만들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이 활용하자. 또한 정자에 걸린 한시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자.

의(義)의 길을 걷자. 그 길에서 올곧게 살아간 남도의 선비들을 만나고 바르게 사는 길을 배우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유적도 집이요, 정자요, 비석이다. 안에 스며있는 스토리를 알면 잔재미가 쏠쏠하다. 의(義)의 길을 걷자. 그 길에서 올곧게 살아간 남도의 선비들을 만나고 바르게 사는 길을 배우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법선 스님

새해니 목은해니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또다시 새해를 맞는다. 그러나 가고 오고, 보내고 맞는 것이 새것이라도 내가 새롭지 않으면 다 묵은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새로워야 모두가 새것이 되는데 나는 안일하고 진부한 사고와 마음으로 주변만이 새로위지기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무등산 둠머리에 살다 보니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난다. 세상과 사회를 위

의치고 면서, 미국이라는 외세를 맨신하는 모습 속에서 보수의 미덕은 사라지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역행하며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수적인 모습만 대중 속에 남아있다.

진보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면모 없는 밭걸음과 새로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 진보를 생각하게 하는 가치이다. 진보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세상을 향해 일관되게, 한결같이 자신과 신념을 지키는 까닭이다.

기고



김기준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서부텍사스 중질유나 두바이 유가 60달러대에서 80달러대까지 등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현재 국제유가는 둘 다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기 회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미치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특히 비산유국인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그리고 어른들은 TV 채널을 돌리느라 고. 하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밤이 온줄 알고 모두 잠자리에 들 것이다. 다섯째, 재래식 공중화장실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 비데를 사용하고 있는 집이라고 하자. 아니, 그냥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첫날은 장유유서 따라 그럭저럭 처리하고 변기 통을 뒤집어두면 그만이다. 이를째는 아파트 단지에서 진동하는 뚝 냄새를 실컷 맡게 될 것이다. 목욕이나 샤워는 꿈

이 시대의 보수와 진보를 위한 바람

해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치열한 삶을 배우기도 하고, 어설픈게 한마디 던지기도 한다. 올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인지 사회활동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필자는 연대와 소통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분열로 당한다.”는 말로 총고를 하거나 경각심을 주려고 하였다.

보수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헌신을 없는 노력을 그 기반으로 한다. 보수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까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깊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통일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반문하고 싶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사회 현실에 눈을 감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말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외시 한 채 무한경쟁을 말한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보다는 반공민족을 공격하게

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는 이러한 활발(活潑)한 본래 모습에 충실한지 묻고 싶다. 웬지 말만 번지르 할 것 같은 구호의 날발과 이벤트상 깜짝소에 의지하는 현실성과 설득력이 결여된 모습과 더불어 흘로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속이 뻔히 보이는 이해관계를 포장해서 툭 하면 분열하는 모습은 신뢰할 수 없는 흔단이라는 느낌을 가져온다. 자칭 진보라는 세력은 지금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극복하려는 세력이 아닌 같은 진보세력 간에 더 극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빛내어 국민을 힘들게 한다. 진보도 보수도 투쟁의 대상이 아닌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진보세력에게 좀 더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고, 서로에게 여유로워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새해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촉원하고 싶다. ‘분열하지 않는 진보가 희망이고, 부패하지 않는 보수가 우리의 미래’라고……. <무등산 문봉정사 주지>

‘국제유가 폭등’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넘겼으나 또 넘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상황이 예전과 같을 리가 없다.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개발도상국들은 자동차 소유 증가, 공장 증설, 고층 건물 건축, 낸방기기 가동 등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때문에 국제유가는 언제든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그 여파로 만약 전기를 제때 공급 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첫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멈춰지게 된다. 당연히 실업대란이 뛰어올 것이다. 그 다음 일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살? 가족 붕괴? 소요사태? 국가 전복?

둘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도매일 두 계단씩 건너뛰는 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위와 더위에 잘 적응한다. 옛날에는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없어도 잘 살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넷째, 낮과 밤이 분명해진다. 현대인들은 밤을 잊은 지 오래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대학생들은 마트나 PC방에서 알바를 하느라고,

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시민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우수성이면 각 구마다 5개 씩 푸세식 공중화장실을 파놓으면 된다. 그 다음 대번 문제 해결은 각자의 뜻이다.

아침마다 출을 서든, 한밤중에 해결하든, 굽 높은 구두로 밭판에 떨어진 똥을 밟는 말이다. 이때 방한제 파는 사람이 돈 좀 벌면 방한제 판매회사와 ‘전쟁’ 하겠다고 덤빌 무개념 위인이 정치인 중에 꼭 나타날 것이다.

요즘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경과간, 계과간의 힘겨루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등지를 틀은 태양광 업체들이 잔뜩 융크리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광산업이 세종시 수장안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로 얻기 위해 우주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고 한다. 24시간 햇빛을 모으기 위해서다.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광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트레킹 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가 대한민국에는 몇 개나 있을까?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수필가>

농업선진국가 가축혈액 활용사례 배워야

우리는 가축 혈액의 극히 약간만 식용으로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한다. 가축의 혈액은 세계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될 민감한 활동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로 위생적인 가축 혈액 수거와 분리방법 개발하고,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혈액을 자원화 할 경우 2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수처리 비용이나 도축장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료용으로도 가공해서 쓰이고 있다고 한다.

가축의 혈액은 세계적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될 민감한 활동이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지역 갈라놓는 지방선거 이대론 안된다

6·2 지방선거가 지역 갈등과 반복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이 지역 내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과 반복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인 정치적 욕망을 위해 지역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시의회의 ‘2010 예산안 및 2009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뒤엉켜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순천시 역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문제를 놓고 선거 입지자와 주민 사이에 친반 논란이 한창이다. 나주시와 순천시는 이를 두루 한에 대한 주민들 간 반목과 대립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기에 뿌리내리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유권자는 지역에 분열시키는 정치인과 그 주종세력이 표로 심판해 지방자치 무대에서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둔제는 주민들의 반목과 그로 인한 지역분열의 배후에 지방선거에 나설 입지자와 정치세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찰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2.4%) 감소했다. 쌀 소비량 감소는 어제오늘 일어난 일 아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대체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쌀 소비량은 지난 1984년(130.1kg)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쌀국수와 쌀라면 개발 등 쌀 소비 촉진책을 내놓았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쌀 가공에 필요한 제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쌀 유통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은 정부의 뜻이다. 막걸리 유통에 맞춰 주류 제조에 적합한 쌀 생산을 위해 품종도 개량할 필요가 있다.

쌀은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자 농업의 근간이다. 흥수 예방과 담수기능 등은 이 친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쌀 소비 촉진이 말로 농촌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민·관이 협력을 모아야 할 때다.

2008년 5월 8만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중국 사천 대지진. 그로부터 채 2년이 안 돼 지구촌은 또다시 아이티 대지진 참사로 전을하고 있다.

아이티 정부는 지난 26일까지 지진으로 희생된 사람 1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물 더미에 깔리고 실종자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지진의 특성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은 나라다. 지난 1995년 한진 대지진은 고베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일본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피해가 커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는 판 내부에서 지진의 균형